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스템 개선

전주시, 내 집 앞에 바로 수거해가는 문전수거제 시범 운영 · 품목도 5개서 3개로 단순화

전주시가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재활용품을 내 집 앞에서 바로 수거해가는 문전수거제를 시범 운영한다.

시는 또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단독주택에서 배출하는 재활용품을 기존의 캔류와 플라스틱류, 유리병, 종이류, 비닐류 등 기존 5개 품목으로 분리 배출하던 것에서 캔 · 플라스틱류, 유리병류, 비닐류 등 3가지로 단순화했다.

시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제외한 잔재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전주시 재활용품 발생량은 지난 2010년에 비해 약 30% 증가한 상태로, 일반 생활쓰레기 혼합 배출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음식물이 묻은 용기와 1회용품 등이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불법투기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활용품을 거점방식에서 내 집 앞에서 수거하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수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삼천2동(완산)과 진북동(덕진) 2개동을 대상으로 내용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투명 봉투를 사용하거나 종이박스를 이용해 재활용품을 수거일 전날 배출하면 익일 수거해가는 시스템으로 문전수거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문전수거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사업 성과를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분석해 이후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단독주택의 분리배출 재활용품 종류를 기존 5개에서 3개로 단순화했다. 특히, 비닐류는 재활용품 선별과정에서 기계 설비의 고장을 야기하는 만큼 묶음식 배출방법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유리병류와 금속류 · 플라스틱류는 비닐봉투 등에 담아서 배출하면 된다.

무엇보다, 시는 재활용품을 선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쓰레기 함유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음식물 찌

촉용기와 과일 개별포장재, 스티로폼의 테이프 미 제거 배출, 코팅된 1회용기 등 재활용 불가품목에 대한 사례 중심의 대시민 홍보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일례로, 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단독주택지역의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상가를 중심으로 재활용 불가품목 사례 중심의 홍보물도 배부했다.

이밖에, 시는 건축 잔재물과 생활가구 등 불법투기 거점장소에는 불법투기 단속 카메라를 집중 배치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요일별 수거지역 경계에 대한 혼선과 상가나 주택 등

재활용품이 많이 배출되는 지역에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거업체와 협의해 수거일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스템 개선을 통해 전주시종합리사이클타운의 재활용품 선별시스템 과부하를 해소하고, 재활용품 처리량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신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선택이 아니라 시민들이 꼭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라며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중심으로 성상을 개선하는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모든 시민들이 다 함께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0일 강릉 삼척 산불을 진화하다 순직한故(고) 조병준 산림항공 검사관의 영결식이 전주 삼성장례문화원에서 열렸다. 유가족들이 헌화하며 눈물을 닦고 있다.

64년 된 전주 군경묘지 새단장

시, 철재 노후 담장 전통담장으로 재설치

‘호국보훈의 달’ 6월을 앞두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호국영령들이 영면한 전주군경묘지를 정비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약 4억원을 투입해 지난 1953년 조성된 전주 군경묘지를 64년만에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먼저, 시는 올해 총 2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전주 군경묘지의 낡고 오래된 철재 · 콘크리트 담장을 전통문화도시의 이미지에 맞게 전통형 담장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또, 묘역 내 배수가 미흡한 일부 지역에는 배수시설이 설치되고, 참배로 경계석은 전면 교체될 예정이다.

이후, 시는 내년에는 제각 기와교체

와 단청 재도색 등 군경묘지 제각을 전면 정비하고, 잔디생육을 방해해온 묘지 주변 소나무 등 수목들을 정비해 군경묘지 정비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권혁신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몸을 바치신 호국영령들과 유가족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전주시의 대표적인 현충시설로서 손색없이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주 군경묘지에는 현재 6·25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하신 군인 325명과 경찰 158명 등 총 483명의 호국영령들이 안치돼있는 전주시의 대표적인 현충시설이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직영 환경관리원 18명 신규채용 나서

전주시는 직영 청소구역의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과 가로청소 업무에 종사할 환경관리원 18명을 신규 채용한다.

이번 채용은 금년 상 · 하반기 퇴직 예정자(11명)와 결원지역 총원(7명)을 위한 것으로, 채용이 완료되면 퇴직자 발생 등에 따른 결원지역에 환경관리원이 충원됨에 따라 인원 부족 문제로 청소가 미흡했던 지역의 가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11일부터 16일까지 전주시 환경관리원 채용을 위한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환경관리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전주시에 계속 거주한 만 20세 이상 만 60세 미만 시민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에 한하여 응시가 가능하다. /김민근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 도내 첫 사례

진안군 공무원 2명 적발

군 체육회 부회장단과 간담회 명목

1인당 3만원 초과하는 저녁식사 제공받아

행자부, 징계 · 과태료 재판 법원 통보 처분

전북지역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8개월여 만에 최초 법 위반사례가 나왔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행정자치부의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감찰에서 진안군 과장 등 2명이 진안군 체육회 부회장단과 간담회 명목으로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저녁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 적발됐다.

진안군 체육회는 진안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어 진안군과 직무관련이 있는 보조단체로 그 임원들은 직무관련자로 청탁금지법의 금품 등 수수금지 대상이다.

행정자치부는 8일자로 전북도에 위 공무원 2명을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처분하고 과

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처분 요구를 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해당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와는 별도로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용준 감사관은 “이번 사례로 그동안 쌓아온 ‘청렴 전북’의 이미지에 흠이 가게 돼 안타깝다”며 “도, 시,군 등 도내 공공기관에 전파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탁금지법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등 청렴한 공직사회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부안해경, 위도해상 원거리 불법 조업어선 검거

부안 해경은 위도 해상 원거리에서 불법조업을 한 어선을 검거했다.

부안 해경에 따르면 지난 9일 10시경 부안군 위도 북서방 4.5마일 해상에서 연안 지망어선 Y호 3.28톤, 연안 지망, 흥원선적, 승선원 2명이 어업구역 위반해 해경에 적발됐다.

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흥원선적 낚시 어선 Y호(3.28톤, 승선원 2명)는 지난 9일 새벽 5시경 충청남도 서천군 흥원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전북 부안군 위도면 위도 북서방 4.5마일 지점에서 약 30분 간 연안 자망어구 1틀을 투양망하여 잡어 5kg(시가 미상)을 포획하는 등 수산법(무허가 조업)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선장 김모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지만 선장과 나머지 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도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전북교육청 공무원 박모(57)씨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경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도에 해당하는 0.089%였다.

경찰은 박씨의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